


공동체 소식



부활 제3주일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 **오늘은 ‘부활 제3주일’ 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부활시기’ 안내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50일간)**
 - 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
 - 신앙의 신비여: ‘다’ 양식
 - **소공동체 봉사자 모임(구역장반장 모임)**
 - 일시 : 4/30(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 **5월 첫주간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신심 : 5/5(금) 오전 10:00, 부활시기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는 없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5/6(토) 오전 10:00, 묵주기도와 함께 하는 미사
 - **8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5/13(토) 11:30부터.
 - **신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 임명**
 - 임명일시: 4/30(주일)
 - 신임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 ※ 신임 평협회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부활 감사송 3 <살아계신 중개자 그리스도> 중-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30	512	175	132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김정원 안젤라	
차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문예나 요안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정지현, 조지연, 김지혜
차 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23일	64명	264달러	200달러
(총 1세대)			

부활 제3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4월 30일
<p>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p> <p>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p> <p>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p>	<h1 style="margin: 0;">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h1> <p style="margin: 0;">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p>	<p>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p>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넷길을 걷는 교회를 불러 오늘 파스카를 경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찬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빵을 나눌 때 그리스도를 알아 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림 묵상**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루카 24,15-16)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가시어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영광이며 죄와 죽음, 미움과 이기심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4,22-33
<예수님께서 죽은 후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화답송 :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1,17-21
<여러분은 티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3-35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기쁜 소식 전하는 두 제자



오늘 복음에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 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려 했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당신이 몸 소 가시려는 곳으로 당신에 앞서 돌씩 짝지어 보내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루카 10,1; 19,29), 이번에도 당 신에 앞서 당신에 관한 소식, 곧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 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소식을 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명씩 길을 나서는 것은 유다 관습에 남자 두 명의 증언이 중요하 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 자 체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마태 18,20; 1코 린 14,29 참조)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 곧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에 관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그들이 “토론”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토론”으로 번역된 그 리스어 동사 시제테오는 루카 22,23에서도 발견되는 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일까에 관해 토론합니다. 이렇게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당신이 살아 있을 때 나, 돌아가셨을 때나 계속해서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토론만 하던 제자들에게 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제자 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서 저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 있었기 때문이라 고 말합니다.(루카 25,15)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주 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가를 묻자 그들은 침뚫한 표정을 합니다.(루카 24,18)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와 예언자로 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해 말씀하신 기록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메 시아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반드시 영광 속 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성경 풀이를 들 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 다.(루카 24,32) 모든 것이 하나씩 돌씩 기억나기 시작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 수님과 함께 더 머물고자 합니다.

드디어 식사 자리가 열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늘 하시던 행위를 보고 그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 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급히 되돌 아와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는 오늘날까지 미사를 봉헌하면서 엠마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미사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분의 가르침과 설명을 들은 뒤, 빵을 떼어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미 사성제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곧 엠 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 스도인들은 미사가 끝난 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각자의 십자가가 놓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 가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엠마오로 내려가 던 제자들처럼 미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아니면 눈이 열리지 않아 아직 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토론만 하고 있지 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 영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천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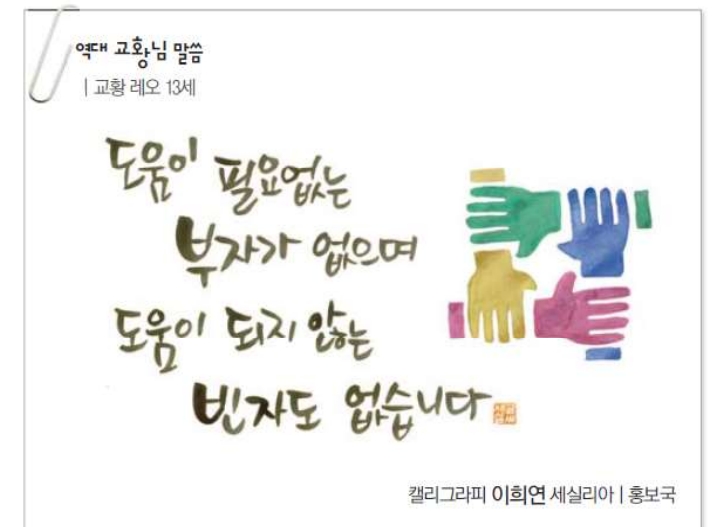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 다.”(루카 1,28) 천사(angel)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앙겔로스(angelos)에서 유래되었 습니다. 천사는 하느님을 모시며 사람들에게 하느님 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三大) 천사 중 미카엘 천사는 하 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며 임종하는 사람 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 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 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묵 시 12,7)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 언자와 같은 분이며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 었다.”(루카 1,19) 라파엘 천사는 병을 낫게 해주고 치 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장애인의 수호자입니다.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 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 빛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 님의 빛을 보게해 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 는 토빛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 주고 또 아 스모대오스라는 악귀를 내쫓아 주는 것이었다.”(토빗 3,17 참조)

하느님은 각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수호천사를

하나씩 정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수호천사 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지켜주고, 사람의 시중을 들어 주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 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 라.”(시편 91,11)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 행위도 ‘천사의 행동’입니다. 한순간 감동을 주었다 라도 ‘순간의 천사’입니다.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다면 ‘영원한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 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히브 1,14)

- 김지영 사무엘 신부



당신의 능력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의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려면

당신은 그런 능력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루카 24,15)

- 임의준 신부 3